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브라질 WTO에 인니 정부 제소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의 쇠고기 수입 규제를 놓고 브라질이 지난 4일 인도네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인니 정부가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브라질이 쇠고기 수출에 있어, 인니 정부가 요구하는 할랄(Halal) 인증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규제역 문제 등으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법상 규제역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분기마다 수입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제무역협상국의 이만 국장은 "WTO에서 논의할 것 없이 브라질 정부와 직접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은 최근 태국정부가 자국 설탕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도가 잘못됐다고 태국정부도 WTO에 제소했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04/21)

□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규제역 발생국의 축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육류와 유제품의 수입은 규제역 청정국에 한하고 있음. 또한 할랄인증 의무화 등이 수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축산물은 해당이 되지 않으나, 유제품은 할랄인증 등 인니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및 인증이 복잡하므로 관련 업체들은 정확히 준비하여 진출해야 할 것임.